

금석배 축구대회 내달 '킵오프'

14일부터 25일까지 군산서
초등 79·중등부 45팀 출전
올해부터 초등 8인제로 전환

전북도축구협회(회장 김대은)가 주최·주관하며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금석배 전국학생(초·중)축구대회가 오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초등부는 고학년과 저학년 페스티벌을 포함해 79개 팀이 출전해 모두 243경기를 치르며, 중등부는 고학년과 저학년 페스티벌을 포함해 45개 팀이 참가, 83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개막경기로 초등부는 2월 14일 10시30분 군산수송공원 축구장에서 경기동탄블루윙스U12팀과 강원원주LEADERS U12팀이 치르고, 중등부는 같은날 10시 월명종합경기장에서 전북이평FC팀과 강원주문진중 축구팀이 경기를 펼치게 된다.



전북도축구협회가 주최·주관하며 전북 군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 금석배 전국학생(초·중)축구대회가 오는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특히 중등부는 울산 현대중을 포함한 13개 프로산하팀이 출전해 화원팀과 프로산하팀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경기를 펼친다. 전북도축구협회 유종희 전무사는 "금석배 축구대회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

년 동안 초등부 저학년 선수를 대상으로 8V8 페스티벌을 진행했으며, 2018년도 후반기 초등리그에서 8V8 시범경기를 운영한바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무주 소재 태권도원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다.

동계 전지훈련은 '태권도원'

작년 12월부터 선수 5000여명 구슬땀

'세계태권도심지'이자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태권도원 동계 전지훈련'에는 현재까지 초·중·고·대학교, 단체, 도장 등에서 연 인원 5천여 명의 선수들이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국가대표 및 상비군 선수들을 비롯해, 한국초등연맹 꿈나무 선수,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시범단, 초·중·고·대학교 태권도선수, 태권도장 등이 태권도원에서 전지훈련을 가졌다.

태권도원이 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선수들이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훌륭한 시설과 지원이 한 몫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T1 경기장과 평원관을 비롯해 다양한 크기의 태권도 수련실과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트레킹 코스, 등산로, 세탁실 등 태권도 기량과 체력 향상을 위한 훈련 및 편의시설이 완비

되어 있다. 특히, 전지훈련 선수들에게 전자호구를 지원하고 있고 대한체육회 태권도 상임심판들의 재능기부로 겨루기 종목에 대한 심판 지원을 했다. 또한, 감독·코치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태권도협회의 2019 새 경기 규칙 설명회가 이루어지는 등 태권도원에서의 전지훈련이 선수와 지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재단 이상욱 이사장은 "전지훈련 중인 선수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훈련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며 "태권도원의 깨끗한 공기와 자연 그리고 안전한 시설에서 전지훈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수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가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달 말에도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과 대학연합 시범단 등이 태권도원을 찾아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아시안컵' ... 지친 벤투호, 과감하게 때려야 산다

바레인전 유효슈팅 2개 뿐

패스는 골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득점을 얻기 위해서는 슈트라고 불리는 마지막 작업을 거쳐야 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2일 오후 10시(한국시간) 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레인과 대결 16강전에서 연장전 끝에 2-1로 승리했다.

예상 밖 졸전이었다. 바레인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한국 53위·바레인 113위)과 역대 전적(10승4무2패)에서 알 수 있듯 크게 신경을 상하게 아니었다.

경기는 기대와 달리 답답한 흐름으로 전개됐다. 적극성의 결여는 한국이 한 수 아래로 여겼던 바레인과 때 아닌 명승부를 벌인 계기가 됐다.

이 같은 특징은 공격 작습시 더욱 도드라졌다. 빌드업을 통해 무언가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라고 생긴 듯 선수들은 세밀한 전개에 지

나치게 집착했다. 그 결과 공을 갖고 있는 시간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슈팅이 들어드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공개한 바레인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공 점유율에서 70.5%-29.5%로 크게 앞섰다. 865개의 패스 시도는 바레인의 361개보다 500개 이상 많았다. 하지만 득점의 마지막 과정인 슈트에서는 오히려 16-17로 밀렸다. 슈트백에 맞고 나온 것을 제외하면 9-13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9개의 슈팅 중 유효슈팅은 2개 뿐이다. 황희찬(함부르크), 김진수(전북)의 득점 장면 외에는 한 번도 골문 안으로 슈팅 보내지 못한 것이다.

무엇보다 손흥민(토트넘)의 침묵이 아쉽게 다가온다.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인정받은 공격수다. 각도와 위치를 가리지 않는 슈팅으로 많은 골을 뽑아내고 있다. 대표팀에서 가장 날카로운 슈팅을 보유한 손흥민이지만 이날은 좀처럼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 기회가 생겨도 골문이 아닌 주위를 둘러

봤다. 손흥민은 120분 간 한 개의 슈팅을 시도했다. 이마저도 수비수에 맞고 흘렀다. 골문으로 향하거나 골대를 벗어나는 슈팅은 전무했다.

비단 손흥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황의조(감바오사기)의 경우 후반 종료 직전 감아차기로 기회를 엿봤던 것이 바레인전의 유일한 슈팅(수비벽 맞은 것 제외)이었다. 오히려 후반 종료 직전 투입된 이승우(베로나)가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승우는 30분이 조금 넘는 짧은 플레이 시간 동안 두 차례 슈팅을 날렸다. 덕분에 처진 분위기가 조금이나마 살아났다.

약속된 공격 전술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나 여의치 않다면 빨리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이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과감한 슈팅이다.

한국은 25일 카타르와 준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카타르는 16강 포함 이번 대회 4경기에서 한 골도 빼앗기지 않았다. 그만큼 수비가 탄탄하다는 증거다. 적극적인 슈팅 시도는 수비진 타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시스

대한축구협회, '성폭력 의혹' 여자축구 선수조사

대한축구협회(KFA)가 최근 불거진 여자 축구팀 성폭력 문제와 관련, 여자 축구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KFA는 23일 "최근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여자축구팀 감독과 관련해 긴급 조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여자 축구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여자축구 WK리그 경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A 감독이 성추행 추문으로 해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커졌다.

KFA는 이 문제와 관련해 긴급 조사팀을 구성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주 한수원이 전지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제주도로 건너가 즉각 조사에 착수한다. 유사 피해 사례 또한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동시에 특별 조치 또한 즉각 발효된다. ▲ 여자축구부 전수조사 실시 ▲ 축구계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 ▲성평등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성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등이 골자다.

전수조사는 외부 전문가, 상담사 등을 활용해 전국의 초·중·고, 대학, WK리그, 대표팀의 여자 선수들과 코치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KFA 측은 "서면 조사로는 성폭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외부기관과 협력해 1:1 인터뷰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폭력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KFA가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예방교육 및 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한진 KFA 사무총장은 "축구계에 성추행이 사라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